선진 장사시설 벤치마킹 결과보고서

- 러시아, 발틱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2016년 10월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사업단

목 차

Ⅰ. 출 장 개 요 ····· 3

1. 견학 현황 ····· 3

2. 견학동기 및 배경 ····· 3

3. 주요 내용 ····· 4

Ⅱ. 방문국가개요 ····· 5

Ⅲ. 방문기관별 장사제도 및 시설 현황 ····· 6

1. 러시아 모스크바 장사제도 ····· 6

가. 장사시설 개요 ····· 6

나. 견학 세부내용 ····· 6

2. 상트페테르부르크 장사시설 현황 ····· 8

가. 장사시설 개요 ····· 8

나. 견학 세부내용 ····· 8

3. 에스토니아 탈린 장사시설 현황 ····· 9

가. 장사시설 개요 ····· 9

나. 견학 세부내용 ····· 9

4. 리투아니아 장사시설 현황 ····· 10

가. 장사시설 개요 ····· 10

나. 견학 세부내용 ····· 10

Ⅳ. 견학 결과 ····· 10

1. 발틱 3국의 장사시설 견학 시사점 ····· 10

가. 선진 장사문화 사례 ····· 10

나. 적용방안 ····· 10

2. 우리 장사문화의 발전 방향 ····· 10

□ 참고자료 ····· 11

- 2016년도 영락공원 주민감시단 -

국외 선진 장사시설 견학 결과 보고서

효율적인 영락공원 관리운영 도모를 위하여 실시한 2016년도 영락공원 주민감시단 국외 선진 장사시설 견학 결과 보고서

Ⅰ. 출장 개요

□ 견학 현황

- ❍ 기　　간 : 2016. 9. 26.(월) ~ 10. 4.(화)《7박 9일》
- ❍ 대상국가 : 러시아, 발틱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 견학인원 : 15명(주민감시단 12, 공단 3)
- ❍ 견학내용 : 묘지·봉안당 등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 전반

□ 견학 동기 및 배경

- ❍ 영락공원 건립·운영과 관련, 지역주민의 선진장사시설 연수를 통해 영락공원 건립의 당위성과 운영의 필요성 제고
- ❍ 방문국의 장사시설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해 세계 장사문화 흐름과 선진장사문화의 벤치마킹을 통한 올바른 장사문화 정착에 일조
- ❍ 지속적인 해외 장사문화 연수를 통해 영락공원의 선진장사문화 노하우 축적 및 발전방향 제시

□ 주요 내용

- ❍ 국외 국가의 묘지·봉안당 등 관리 운영실태 견학
  - 장사시설 방문 : 러시아, 발틱 3국 도심 장사시설
- ❍ 장사문화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대처 방안 자료 수집 등
  - 자연장·수목장 등 선진장사법 도입 및 운영 방법 등
- ❍ 기타 장사시설 관리·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자료수집 등

▢ 견학 일정표

구 분		일 정	비 고
대상국가		· 러시아, 발틱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기 간		· 2016. 9. 26. ~ 10. 4.(7박 9일)	
인 원		· 15명(주민감시단 12명, 공단 3명)	
방문 일정	1일 9/26 (월)	· 김해공항(07:00) ⇒ 인천공항(09:00) ⇒ 모스크바(16:15) ⇒ 상트페테르부르크(18:20) - 석식 및 숙소 배정	
	2일 9/27 (화)	· 상트페테르부르크 ⇒ 여름궁전(전용차량) ⇒ 에르미타쥐 박물관 ⇒ 성이삭성당	★장사시설방문
	3일 9/28 (수)	· 상트페테르부르크 ⇒ 탈린(에스토니아 수도) ⇒ 알렉산더 성당 ⇒ 비루게이트 ⇒ 시청광장	
	4일 9/29 (목)	· 탈린(합살루 대주교 성당) ⇒ 합살루 역 ⇒ 페르누 시가지 ⇒ 리가(라트비아 수도)	★장사시설방문
	5일 9/30 (금)	· 리가(자유의 여신상) ⇒ 성 피터 교회 ⇒ 룬달레 궁전 ⇒ 십자가의 언덕(장사시설) ⇒ 빌뉴스	★장사시설방문
	6일 10/1 (토)	· 빌뉴스(리투아니아) ⇒ 성베드로 교회 ⇒ 대통령궁 ⇒ 성안나 교회 ⇒ 트라카이 중세 고성	★장사시설방문
	7일 10/2 (일)	· 빌뉴스 ⇒ 크레물린 궁(모스크바) ⇒ 사원 광장 ⇒ 대천사 사원 ⇒ 12사도 사원	
	8일 10/3 (월)	· 아르바트거리 ⇒ 붉은 광장 ⇒ 무명전사 무덤 ⇒ 레닌묘 ⇒ 모스크바 출발(21:00)	★장사시설방문
	9일 10/4 (화)	· 인천공항도착(11:10) ⇒ 부산 도착(15:30)	

Ⅱ. 방문국가 개요

☐ 러시아의 봉안시설 관리운영 실태 견학

❍ 모스크바 봉안시설 : 1개소

- **노보데비치 수도원 묘지 및 봉안시설 등**

❍ 상트페테르부르크 봉안시설 : 1개소

- **알렉산더 네프스키 수도원 묘지 및 봉안시설 등**

☐ 에스토니아의 봉안시설 관리운영 실태 견학

❍ 에스토니아 탈린 봉안시설 : 1개소

- **탈린 화장장 및 국립묘지 시설 등**

☐ 리투아니아의 봉안시설 관리운영 실태 견학

❍ 리투아니아 빌뉴스 봉안시설 : 1개소

- **빌뉴스** 라소스(Rasos) 묘지 및 봉안시설(1800년 조성)

☐ 러시아 및 발틱3국의 생활상 등 다양한 문화탐방

❍ **러시아 문화탐방** : 크렘린 궁, 이반대제의 종루, 성모승천 사원 대천사 사원, 12사도 사원, 아르바트 거리, 붉은 광장, 성바실리 사원, 무명전사의 무덤, 여름 궁전, 에르미타쥐 박물관, 카잔성당, 성이삭 성당

❍ **발틱 3국 문화탐방** : 알렉산더 넵스키 성당, 툼페아 성곽, 비루게이트, 올리비스테 교회, 탈린 시청 광장, 합살루 대주교 성, 차이코프스키 의자, 합살루 역, 페르누 시가지

리가의 자유의 여신상, 삼형제 건물, 성 피터 교회, 검은머리의 전당, 룬달레 궁전, 십자가의 언덕, 성 베드로 파울로 교회, 대통령 궁, 호박 박물관, 문학인의 거리, 트라이카 중세 고성 등

Ⅲ. 국외 장사제도 및 시설 현황

□ 모스크바 장사 제도

- ❍ 연방으로 구성됐던 소련이 러시아로 바뀐 이후에도 러시아는 유럽에서 아시아에 걸친 유라시아 대륙의 반도를 점유한 넓은 국토에는 여러민족이 살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우즈베키스탄인, 백러시아인이 많으며 소수민족으로 동양계의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다.
- ❍ 과거 공산당 정권 당시에는 반종교적 정책에 따라 종교 신자는 격감되었으나 그래도 국책에 반하지 않는 한 개인의 종교 자유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 중 고령자들은 러시아 정교나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신자 수는 인구의 10%정도이다.
- ❍ 러시아는 사망했을 경우 의사의 사망 진단서를 첨부하여 가까운 관청의 장의계에 신고하면 국영의 장의사가 관련된 업무를 수배해 준다. 최근에는 최저 장의 요금이 약 60루블이며 평균 임금이 약 250루블로써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요금이기도 하다. 이 요금에는 관 값, 운송비, 화장 비, 유골함 비, 또는 매장비가 포함되어 있다.
- ❍ 모스크바 등의 대도시에서는 거의 공영묘지 부설의 화장장 겸 장의장에서 장례를 치른다. 장의는 일반적으로 무종교 의식으로 고인이 속했던 조합의 상사가 조사를 읽고 유족 대표가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는 등으로 간략하게 거행되나 쇼팽의 장송곡이 흐르기도 하며 장의비용은 상중하의 3단계 정도로 되어 있다.
- ❍ 러시아의 최첨단 장례식 절차를 보면 화장장에서 관계자들이 도열해 있는 가운데 장의식장 중앙좌대에 안치된 관이 장송곡이 연주되는 속에서 서서히 엘리베이터 식으로 된 장치에 따라 지하에 있는 소각로에 이송되고 약 2시간 후에는 유해가 되어 함에 봉안되어 유족에게 인도되면 유족들이 묘지에 매장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

- 모스크바에서는 묘지의 취득 난으로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화장을 장려하고 있다. 다만 화장한 유해를 같은 규격의 지하 묘 또는 납골당이 정연하게 줄서 있는 묘지에 매장하는 것이다. 묘지 입구의 꽃가게로부터 꽃다발을 사가지고 묘를 참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며 특히 매년 4~5월에 걸쳐 러시아 정교의 부활절 일요일에는 "구리찌"라는 원형으로 만든 특제의 빵이나 색칠한 계란 또는 꽃다발을 들고 오는 참배객들이 붐비기도 한다.
- 1990년 "신앙의 자유와 종교단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명실공히 신앙의 자유가 실현되어 부활절 행사는 점차적으로 성대해지고 있다. 러시아에서 묘지에 특이할만한 것은 어느 곳을 가더라도 묘지의 일각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몰한 무명용사의 무덤이 함께 조성되어 있고, 그 앞에는 영원한 횃불이라 하여 불이 항상 꺼지지 않는 장치와 형형색색의 화환이 진열되어 있다. 관청 부설 결혼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린 신랑, 신부는 반드시 이 무명용사 묘를 참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 상트페테르부르크 묘지

- 알렉산더 네프스키 수도원이 유명한 18세기 러시아 정교회 수도원에 안장되어 있는 러시아의 위대한 사상가들의 묘지가 모여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수호 성인 이름을 따서 명명된 알렉산더 네프스키 대수도원(Alexander Nevsky Lavra 또는 Alexander Nevsky Monastery)은 참배객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음악, 문학, 과학의 팬들을 끌어 모으는 신성한 건물들이다.
- 표트르 대제는 실수로 이곳이 1240년에 스웨덴과 러시아 간의 중요한 전투가 있었던 장소라고 판단하여 이곳에 수도원을 건설하도록 명령했다. 표트르 대제의 착오가 있었지만, 수도원은 번성했고 1797년에는 러시아 정교회의 수도원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인 대수도원(Lavra)으로 선포되었다.

- 정교한 종교적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는 게이트 교회의 거대한 아치를 통과해 안으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구역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지만 여전히 수도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참배에 유의해야 한다.
- 붉은 외관에 섬세한 흰색 디자인이 특징인 수태 고지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 건축가, Domenico와 Pietro Trezzini가 설계한 두 개의 바로크 교회 중 하나다. 신고전주의 양식의 성 삼위일체 성당도 방문해볼 만한 곳이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종교화와 성상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네프스키의 유해를 모시고 있는 은으로 된 신전도 볼 수 있다.
- 여기는 엘리트 러시아인 예술가, 작곡가, 사상가 중에서 죄와 벌의 작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작곡가 표트르 차이코프스키, 건축가 카를로 로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레온하르트 오일러가 안장되어 있다.

□ 에스토니아 탈린 장사시설 현황

- 에스토니아(Estonia) 공식 이름은 에스토니아공화국으로 유럽의 북동부에 있는 나라로 수도는 탈린이다.
  본토와 발트 해의 800여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1918년까지 독립국이었던 에스토니아는 1940년 소련에 합변되었다가 1991년 독립하게 되고 북쪽으로는 핀란드만, 동쪽으로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라트비아, 서쪽으로 발트해와 접해 있다.
- 에스토니아의 국가 면적 45,227k㎡, 인구 1,353천명으로 기후는 온화한 대륙성으로 전반적으로 농업에 적합하다. 1년 중 월평균 기운이 가장 낮은 달은 2월로 탈린의 연강우량은 570mm로 연중 고른 분포를 나타낸다.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 발트3국 중(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최초로 건립된 화장장이 있으며, 현재 에스토니아에는 3개의 화장장이 있다.
  현재의 화장률은 15%로(매장율이 85%) 매년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화장장 이용은 탈린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발트 3개국의 국민 모두가 이용 가능하다.
- 에스토니아는 1300년대 까지는 화장을 주로 하였으나 독일이 지배한 이후 시대에는 화장을 금지하고 매장정책을 펼쳤으나, 러시아로부터 독립되고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 매장과 화장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 탈린 시내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5분 거리에 국립묘지가 위치해 있다. 화장장 건물은 1978년 건축되었으며, 1993년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운영되고 있고 2003년 건물 내외부를 리모델링하여 사용 중에 있다.
- 소비에트 연방시대에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서 화장장 건립이 가능하였으나 독립 이후 화장장 신설이 자유롭게 되었다.
  화장장 입구는 별도의 정문은 없고 아름다운 수목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왼편에는 화장장 건물이 있음. 화장장 건축은 규모는 크지 않으나 종탑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건축물이 주면 경관과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 화장장 건물 내 시설로는 영결식장으로 사용되는 장례 예식실 2개(큰방 200명, 작은 방 30명 수용)와 상담실, 사무실(납골함 전시실), 조문객 식당 2개, 유족 대기실, 화장로실(2기) 등을 갖추고 있다.
  예식실은 고별을 위한 영결식을 드리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장례예식은 중간에 관을 진열해 놓고 예식을 진행하며, 예식이 끝난 후 관이 지하 화장로로 내려가 화장을 진행하고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바이올린 또는 전자오르간을 직접 연주해 주는 경우도 있다.
  화장로는 미국식 2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로는 가스를 사용한다. 1일 평균 6기정도 화장을 하고 있으며, 연평균 화장 건수는 2,000기, 현재까지 총 화장장 이용자 수는 2만6천여명에 이른다.

- 에스토니아에서는 일반적 화장을 할 경우에는 관을 태우지 않고 관 내부의 두꺼운 종이로 싸인 시신만을 화장하며(가족이 요구할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관도 태우기도 함.), 매장인 경우에는 관과 같이 매장한다. 관의 종류로는 천으로 된 관과 나무관이 있으며 나무관의 주 재로는 도토리나무이고 관의 선택은 유가족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비용지불도 개인이 하게 된다. 관의 비용은 재료와 모양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20만원 ~ 200만원 수준으로 지불하면 된다.
- 에스토니아의 평균적 장례비용은 50만원~100만원이며, 국가에서 유가족에게 장례 1건당 지원액 24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한다. 이곳은 화장시 유족이 참관하지 않으며 화장을 위탁하고 2~3일 후에 유골만을 찾으러 온다.
  정문에서 양방향에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넓은 길이 있으며, 매장묘와 평장형 납골묘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산골장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납골당 및 옥외 납골시설도 없다. 매장의 경우 2m, 유골의 경우 1m 깊이로 매장한다.

□ 리투아니아 장사시설 현황

- 리투아니아를 비롯해 유럽 여러 나라에 있는 대부분 묘지는 조각공원을 방불케 한다. 자녀나 후손들이 망자를 위해 세운 묘비는 재료부터 모양까지 참으로 다양하다.
-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가장 오래된 묘지는 빌뉴스 기차역 동쪽에 위치해 있는 라소스(Rasos) 묘지이다. 1800년 세워진 이 묘지는 빌뉴스에서 가장 유명한 묘지로 한 때 국립 묘지의 역할을 했다. 이곳에는 리투아니아, 폴란드, 벨라루스 등 여러 나라의 저명인사들이 많이 묻혀있다. 소련 점령시대 이곳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람들의 애국시위 장소이기도 했다.

Ⅳ. 견학 결과

□ 발틱3국의 장사시설 견학 시사점

- ❍ 발틱3국의 정치 문화는 러시아 정교의 영향이 깊게 배어있어 장사시설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 묘지나 화장장이 대부분 주택가와 인접해 있고, 도심 곳곳에 조각공원 형식으로 묘지를 만들고, 묘지 위를 예쁜 꽃밭으로 조성해 자주 방문하고 가꾸고 있다.
- ❍ 우리나라와 문화의 차이 등은 있으나, 우리의 장사시설도 공원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 장사문화의 발전방향

- ❍ 장사시설을 더 이상 혐오시설로 인식하지 않고 도심속에서 함께 공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부드럽고 친밀감 있는 다양한 공원 형태의 시설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 ❍ 봉안당의 공간부족으로 야기되는 추가설치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영락공원 가족봉안묘 설치 등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 인근시민에게 친숙한 묘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민편의시설 설치 및 조각공원 조성 등을 통하여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1] 참고자료 각 1부. 끝.

[붙임1] 참고자료

러시아 견학 사진

상트페테르부르크 여름 궁전	여름 궁전 정원	상트페테르부르크 궁전
네프스키 수도원 묘지	차이코프스키 묘비	에르미타쥐 박물관 미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견학 사진

성 피터 교회	라트비아 시가지	궁전 내 벽화
툼페아 성곽	차이코프스키 노래비	발틱해 해변
탈린 시내 묘지1	탈린 시내 묘지2	탈린 시내 묘지3

리투아니아 견학 사진

빌뉴스 묘역	빌뉴스 묘지 헌화	빌뉴스 추모 향로
십자가의 언덕	빌뉴스 묘역	빌뉴스 묘지